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무한히 용서하매라(마태 18,21-35 (가))

성경 쉽게 읽기 특강 성경 쉽게 읽기 선교회

'성경 쉽게 읽기 선교회' 가 성경 읽기 2차 특강에 들어간다.

강사는 성경을 일천 번 이상 통독한 데이비드 리 목사이다.

이 특강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강 일시는 오는 9월, 매주 토요일(9일, 16일, 23일, 30일) 10시 30분이며 장소는 Kairos University Campus(아바인분교 2층, 2681 Walnut Ave., Tustin, CA 92780)이다.

강좌 정원은 30명이며 등록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등록비용은 50달러이다. 기존에 이 강좌를 수료한 사람은 무료 수강할 수 있다.

문의: (949) 304-8912
bible100plus@gmail.com

청소년 찬양 축제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가 주최하는 제7회 청소년 찬양 축제(2023 Praise Youth Festival)가 오는 9월 2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미주복음방송 공개홀(2641 W. La Palma Ave. Anaheim, CA 92801)에서 열린다. 올해로 7회째이다.

이날 행사는 기악과 성악 경연으로 진행된다. 기악은 독주와 듀엣, 트리오 이상등으로 경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성악은 독창, 중창으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자격은 K-12학년이며, 참가 신청 기한은 8월 30일(수)이다.

참가자들은 찬송가 또는 CCM 1곡, 자유곡 1곡을 연주해야 한다. 경연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솔로 60달러, 듀엣 80달러, 트리오 이상은 100달러이다.

심사 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비롯해 학년별 1등상, 2등상, 3등상 대상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문의: (818) 397-3344, (562) 324-8579

모 분당에 외아들을 두고 있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외아들은 3대 독자였으며, 노부부에게는 희망이요, 삶의 의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외아들은 젊은 운전사가 운전하던 트럭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과속 운전한 운전사에게 있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노부부를 위로했으며, 동시에 운전사에게는 저주와 욕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노부부는 커다란 슬픔 중에도 오히려 젊은 운전사의 장래를 걱정하였고, 또 경찰과 법원에 운전사를 용서해 줄 것을 탄원하였으며 그 운전사를 자기의 아들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운전사는 자기의 과오를 뉘우쳤고, 주위의 사람들은 노부부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

다. 교향 자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특히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적인 신앙을 가지고서도 실천하기 힘든 것임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용서하라는 가르침은 모든 이가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타인을 용서해 주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심으로써 용서의 중요성을 오늘 복음에서 강조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원수를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느냐고 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으로는 이에 이, 눈에는 눈으로 갚는 동태복수법이 성행하던 시대에 일곱 번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던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일곱 번의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



시다. 일곱 번의 일흔 번은 글자 그대로 사백구십 번이 아닌 무한히 용서하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무자비한 채무자의 비유를 들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희망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는 조건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정신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 속에 증오심을 굳어 버리게 하는 것이며 증오심은 형제를 미워하는 격렬한 감정의 한 형태로서, 과격한 행위를 일으키며, 그 자체가 파괴적이며, 이런 증오심은 바로 사탄의 것입니다.

성 요한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 (1요한 3.15)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용서하는 것만큼 용서받기를 바라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고, 조롱하고, 모욕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에서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순전히 공상이 아닌, 우리 모두가 지켜야만 할 계명이기에 우리 모두가 힘껏 노력하는 수밖에 달리 길이 없습니다.

교향 자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남

의 잘못을 찾아내고 남이 나에게 끼친 해에는 극도로 민감하나, 우리 자신이 타인에게 저지른 과오나 더 나아가 하나님께 매 순간 죄짓고 또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는 잘 본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웃과 하나님께 더 심각한 해를 끼쳤을지 모른다는 생각과 또 하나님께 용서받고 있다는 신앙으로 우리가 남에게 받은 피해를 용서해 주도록 노력합시다.

우리가 누군가에 피해를 받아 분노가 우리 마음을 휩싸고 있을 때에 화해하기를 힘써 노력합시다. 주님께서 화해를 빨리 해야 할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십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마태 5.24). 혹시 우리는 먼저 화해를 청하기보다는 화해를 청하여 온 우리의 형제를 저버린 일은 없습니까?

교향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분과 가까워질 것이며, 더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다.

-이병돈 신부-
일러스트=shutterstock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